신영 ESG

지역별 차별화 속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한 국내 ESG 시장

Update Report 2025. 08. 28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T.02)2004-9256
oh.gwang-young@shinyoung.com

지역별로 차별화를 보이는 ESG 펀드 시장: US vs Non US

모닝스타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글로벌 ESG 펀드(모닝스타 분류 기준: Global Sustainable Fund)로의 분기 자금 흐름은 49억 달러의 순유입을 보이며 1분기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됨.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86억 달러가 순유입 되며 1분기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됨. 또한 미국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57억 달러의 순유출 되며 11분기 연속 순유출 기록하며 부진을 이어감. 기타 지역의 ESG 펀드로의 분기 자금 흐름은 약 20억 달러가 순유입 되며 3분기 연속 순유입 기록.

글로벌 ESG 펀드 규모는 2025년 2분기말 기준 3조 5,350억 달러로 글로벌 자산시장의 강세 영향 등으로 직전 분기 대비 10% 증가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함.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 지역의 펀드 규모는 직전 분기말 대비 10% 증가한 3조 40억 달러로 전체의 85%를 차지함. 미국 지역 펀드의 경우 직전 분기말 대비 7.6% 증가한 3,550억 달러로 전체의 10%를 차지함. 기타 지역의 경우 직전 분기말 대비 10% 증가한 1,760억 달러로 전체의 5%를 차지함.

지역별 차별화 속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한 국내 ESG 시장

최근 몇 년 동안 평균적으로 ESG 전략의 저조한 성과, 그린 워싱 우려, 규제 변화, 미국의 反ESG 정서 강화 등 여러 요인이 ESG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특히 미국 지역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反ESG 정서가 강화되며 정치적 압박이 거세졌으며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ESG에 대한 정치적 반발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섰다는 평가임. 이에 따라 ESG 시장은 미국과 미국 외 지역으로 나뉘어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런 가운데 국내 ESG 시장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함.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지난 2월 발표한 '2023년 한국ESG금융백서'에 따르면 국내 ESG 시장 규모는 총 1,882.8조 원으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9년 대비 213.3% 성장함. 이는 특히 공적 섹터가 30% 넘게 성장하며 시장을 견인했기 때문임. 그런데 최근 업데이트 된 국내 3대 연기금들의 ESG 투자 규모는 이 보고서 수치 대비 약 10~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대표적인 민간 섹터인 국내 ESG 펀드 규모는 2024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중임. 여기에 정부의 주주 보호 및 지배구조 개선,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에너지고속도록 구축,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ESG 투자는 동반하여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ESG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임.

Content

지역별 차별화 속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한 국내 ESG 시장

(1) 2025년 2분기 글로벌 ESG 펀드 시장 동향 3

-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 1분기 만에 분기 기준 순유입으로 전환
- ESG 펀드 Asset: 약 3.5조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10% 증가
- 신규 ESG 펀드 출시: 사상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 일부 회복

(2) 지역별 차별화 속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한 국내 ESG 시장 13

- 주요국 ESG 시장 차별화 지속: US vs Non US
-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하며 성장한 국내 ESG 시장

지역별 차별화 속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한 국내 ESG 시장

(1) 2025년 2분기 글로벌 ESG 펀드 시장 동향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 1분기 만에 분기 기준 순유입으로 전환

2025년 2분기 기준 글로벌 ESG 펀드 시장은 지난 분기 부진한 모습에서 벗어나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SG 시장을 둘러싼 여러 도전과 反 ESG 기조를 보이는 공화당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유럽 지역이 회복세를 보인 까닭에 글로벌 ESG(≒책임투자≒지속가능성 투자) 펀드는 성장세를 일부 회복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제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6)를 전후로 ESG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 증가 속에 글로벌 ESG 펀드 시장은 2021년 한때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했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인플레이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준의 고강도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미국의 Anti-ESG운동, 유럽의 Greenlash 등 ESG를 둘러싼 여러 도전으로 ESG 펀드 시장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해에도 1~3분기 사이 지속적으로 자금 유입이 둔화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4분기 들어 181억 달러가 순유입되며 한때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1분기에 118억 달러가 순유출 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2025년 2분기 글로벌 ESG(≒책임투자)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49억 달러 순유입 기록

최근 발표된 모닝스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ESG 펀드(모닝스타 분류 기준: Global Sustainable Fund)로의 분기 자금 흐름은 49억 달러의 순유입을 보이며 1분기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특히 지난 분기에 처음으로 분기 기준으로 순유출을 보인 유럽 지역이 다시 큰 폭의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ESG 펀드 시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21년 연간 6,450억 달러가 유입되며 사상 최대 호황을 보였던 ESG 시장은 2022년에는 ESG에 대한 여러 도전과 글로벌 자산 시장의 부진 여파 등으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매분기마다 순유입 규모가 감소세를 보여 연간 순유입 규모는 1,610억 달러에 그치며 직전 해 대비 75% 감소했다. 이후 2023년에도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의 고조와 함께 높은 금리 레벨과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등이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ESG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감소해 연간 순유입 규모는 630억 달러로 급감했다. 2024년에는 불확실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전망, AI 붐, 지정학적 위험 지속 등 복합적인 거시

경제 환경 속에서 연간 ESG 펀드로의 자금 순유입 규모는 직전 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2분기에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지만 1분기 대규모 순유출 영향으로 상반기 기준으로는 69억 달러가 순유출을 기록하며 관련 통계가 발표된 2020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글로벌 펀드 시장의 자금 흐름은 2025년 들어 2분기에도 순유입을 보이며 6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 중

한편 모닝스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2분기에는 일반적인 글로벌 펀드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은 지난 분기 5,300억 달러 순유입에서 감소한 2400억 달러가 순유입 되면서 6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기간 시작 시점의 총자산 대비 순유입으로 계산하는 유기적 성장률도 +0.44%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글로벌 펀드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은 2022년 이후 매 1분기에는 순유입 기록했으나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매 분기 순유출을 기록했다. 2022년 1분기 +1,410억 달러, 2023년 1분기 +770억 달러 순유입, 2024년 1분기 +520억 달러 순유입 등 매 1분기 순유입 기록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2022년, 2023년에는 매 분기 순유출을 기록했다. 2022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글로벌 자산 시장의 조정 영향 등으로 2000억 달러 내외의 순유출을 보였으며, 2023년에는 순유출 규모가 대폭 감소해서 -190억 달러 → - 30억 달러 → - 190억 달러 흐름을 보인바 있다. 이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높은 인플레이션 고착화, 고금리, 계속되는 경기 침체 우려 등의 거시경제적 역풍에 직면해 투자 심리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4년 이후 글로벌 증시의 강세 등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순유입 흐름도 개선되며, +520억 달러 → +2,000억 달러 → +3,730억 달러 → +8,470억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5,300억 달러 → +2,400억 달러 순유입되며 6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으나 순유입 규모는 직전 분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 약화 → 어려운 거시 환경 + ESG를 둘러싼 정치적 부담 가중 + 그린 워싱 우려 + 일부 ESG 테마 유형의 부진한 성과 등의 영향으로 투자자들이 ESG 투자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비해 글로벌 ESG 펀드의 유기적 성장률은 경우 지난 분기 -0.37% 에서 +0.15%로 반등에 성공했으나, 여전히 일반적인 글로벌 펀드 시장의 유기적 성장률인 +0.44%에 비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까지는 순유입 규모 등을 통해 ESG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를 판단해볼 때 2020년 이후 점점 약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었다. 이는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이 매 반기 순유입을 유지한데다가 유기적 성장률도 상대적으로 양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반기 기준 순유출을 보이고, 유기적 성장률도 일반적인 글로벌 펀드를 2분기 연속 밑도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크게 약화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약화된 투자 심리는 부분적으로 높은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지속,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세계 일부 지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 어려운 거시 환경에 기인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2분기 들어서 지정학적 복잡성이 지속되고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등 리스크 요인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히 올해 들어서 ESG 시장을 선도하는 유럽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에 대한 우선 순위가 경제 성장, 경쟁력, 지정학적 리스크 및 국방 등에 비해 낮아진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변화 및 反 ESG 정책 조치로 인해 기업과 자산 운용사들이 ESG 이니셔티브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는 투자 규모를 축소한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한편 유럽 투자자들의 경우, 옴니버스 패키지(규제 간소화 종합 패키지), 현재 진행 중인 지속가능 금융 공시 규정(SFDR) 검토, 그리고 ESG 펀드 관련 규제 변화 등 변화하는 규제 환경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동시에 일부 ESG 투자 전략의 성과 우려 또한 지속가능성 전략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에 대한 비중 축소와 기술 및 기타 성장 부문에 대한 비중 확대를 추구했던 글로벌 ESG 펀드의 투자 전략이 저조한 성과를 보인 바 있으며, 최근에는 방위산업에 대해 배제 전략을 취하고 있는 전통적인 ESG 펀드들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으로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초강세를 보임에 따라 ESG 투자와 관련해 방위산업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가져가야 한다는 등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ESG 투자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86억 달러가 순유입되며 1분기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됨

2025년 2분기 기준 지역별로 ESG 펀드로의 자금 유출입을 살펴보면, 유럽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약 86억 달러가 순유입 되며 1분기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전체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 중 순유입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의 규모로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이는 73억 달러가 순유출 되며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했던 지난 분기의 부진에서 빠르게 벗어나 순유입을 기록함으로써 상반기 기준으로 13억 달러 순유입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처럼 유럽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이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유기적 성장률도 이전 분기의 -0.19%에서 +0.31%로 상승했다.

유럽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채권형 ESG 펀드는 순유입을 기록했으나 주식형 ESG 펀드는 순유출을 기록함

한편 자산 유형별로는 채권형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지난 분기 128억 달러 순유입 보다는 줄어든 101억 달러가 순유입 되었으나 이번 분기 유럽 지역의 순유입을 주도하며 6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또한 직전 분기 143억 달러가 순유출 되었던 주식형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이번 분기에는 24억 달러로 순유출 규모가 크게 감소한 점도 이번 분기 자금 흐름이 순유입으로 전환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유럽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패시브 전략과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 모두 순유입을 기록했음 →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는 6분기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됨

스타일별로 살펴보면 유럽 지역에서도 패시브 전략 ESG 펀드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분기 패시브 전략의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45억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이번 분기 패시브 전략 ESG 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직전 분기의 역대 최저 수준인 16억 달러 순유입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해 투자자들의 선호도는 개선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패시브 전략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특히 비용 효율성 및 베타와 유사한 노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분기까지 6분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던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도 약 41억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미국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57억 달러의 순유출을 보이며 11분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는데 직전 반기 대비 순유출 규모도 약 94% 증가함

미국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2021년 1분기에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5년 2분기에도 57억 달러가 순유출 되며 최근 11분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하는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023년 3분기 이후 증가세를 보였던 순유출 규모는 2024년 2분기 들어 직전 분기 대비 순유출 규모가 -48% 감소하고 3분기에도 -57% 감소하며 미국 지역에서도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해 4분기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다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며 순유출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에 2025년 상반기 들어 지난 해 하반기 대비 순유출 규모는 94%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2022년에는 매 분기마다 순유입과 순유출이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였었다. 하지만 2022년 4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순유출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2023년에는 한 해 동안 총 133억 달러가 순유출 되며 연간 기준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2024년 들어서도 매 분기 순유출을 기록했으며 연간 기준으로 195억 달러가 순유출 되며 2년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2025년 2분기 미국 지역의 ESG 펀드의 유기적 성장률은 전분기 -1.9% → -1.7%로 소폭 개선됐다. 반면, 미국 지역의 전체 펀드 시장의 순유입 규모는 전분기 1,39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으며, 유기적 성장률도 지난 1분기 +0.48% → +0.27% 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ESG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심화된 ESG 반발에 일부 기인함

이와 같이 미국 투자자들의 ESG 펀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감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심화된 ESG 반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새 행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반대 입장과 DEI를 겨냥한 행정명령과 그리고 ESG 이니셔티브를 없애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여러 反 ESG 정책 조치는 기업에 새로운 법적 위험을 초래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많은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ESG 공약을 축소하고 ESG 펀드 규제에 따른 자격 증명과 지속가능 투자 상품을 홍보하는 데 더욱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 지역의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자산군별로 살펴보면 채권형 ESG 펀드가 9분기 만에 순유출로 전환됨

자금 흐름을 자산별로 살펴보면 9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던 채권형 ESG 펀드는 2.4억 달러 순유출 보이며 분기 기준 순유출로 전환되었다. 또한 운용전략별로는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는 53억 달러의 순유출을 보이며 9분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또한 패시브 전략의 ESG 펀드도 이번 분기 4.6억 달러 순유출되며 2분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참고로 2024년 한 해 동안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직전 해 51억 달러의 순유출에서 크게 증가한 160억 달러가 순유출 되었다. 또한 패시브 전략의 ESG 펀드는 직전 해 82억 달러의 순유출에서 감소한 36억 달러 규모의 순유출을 기록한 바 있다.

미국 지역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는 2023년 1분기를 제외하고 2022년 1분기 이후 매 분기마다 순유출 기록 →대표적인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 운용사인 Parnassus 의 PRBLX 등이 순유출을 주도함

특히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는 2023년 1분기를 제외하고 2022년 1분기 이후 매 분기마다 순유출을 기록 중이다. 2024년 평균 40억 달러 내외의 순유출을 보였으며 2025년에는 이보다 증가한 50억 달러 이상이 매분기 순유출 되고 있다. 이처럼 순유출을 보인 이유는 대표적인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 운용사인 Parnassus 운용사의 Parnassus Core Equity Fund(PRBLX)가 2025년 2분기에도 순유출 상위 펀드에 오르면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액티브 전략의 대표적인 ESG 펀드로 알려졌던 Parnassus Core Equity Fund (PRBLX)가 최근 2년 연속 순유출을 기록하며 약 70억 달러가 유출되어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 순유출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Parnassus 운용의 펀드에서 대규모 순유출이 발생한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는 CIT(Collective Investment Trust)의 출시와 그에 따른 투자자의 이동에 따라 모닝스타 집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arnassus Core Equity Fund(PRBLX)는 미국 내 최대 순자산 규모를 보유한 대표적인 ESG 펀드이다.

기타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20억 달러 순유입 되며 3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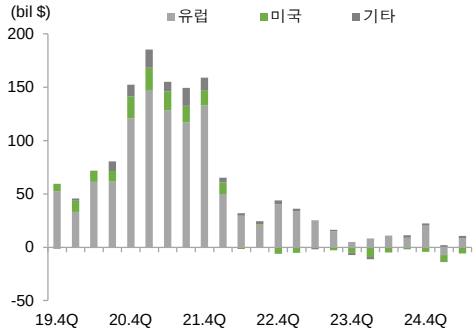
일본, 호주/뉴질랜드, 캐나다, 아시아(일본 제외) 등으로 구성된 기타 지역의 ESG 펀드로의 분기 자금 흐름은 약 20억 달러가 순유입 되며 3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전 분기에 23억 달러가 순유입 되었던 아시아(일본 제외) 지역도 이번 분기 동안 20억 달러가 순유입 되었다. 이는 중국 지역의 ESG 펀드에서 202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순유입을 기록한데다가

태국, 한국, 홍콩 지역의 ESG 펀드도 순유입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특히 태국 태국 지역에서 세제 혜택이 있는 Thai ESG Extra Fund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자금 유입이 증가한 것이 아시아(일본 제외) 지역의 ESG 펀드가 순유입을 보인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11분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던 일본의 경우 2025년 2분기 1,300만 달러가 순유입 되며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이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같은 기간 일본 전체 펀드 시장으로 유입된 자금 유입 규모인 112억 달러에 비하면 ESG 펀드로의 순유입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세부 전략별로 살펴보면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는 6.7억 달러 순유출 되며 13분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으며, 패시브 전략의 ESG 펀드는 6.9억 달러 순유입을 보여 액티브 전략과 패시브 전략의 ESG 펀드가 상반된 자금 흐름을 보였다. 또한 직전 분기 2.2억 달러의 순유입을 보였던 캐나다의 경우 1.6억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특히 스타일별로 살펴보면 패시브 전략의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4.3억 달러 순유입이 되었지만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 경우 2.4억 달러 순유출을 보였다. 자산별로는 채권형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이 1.3억 달러 순유입을 보이며 순유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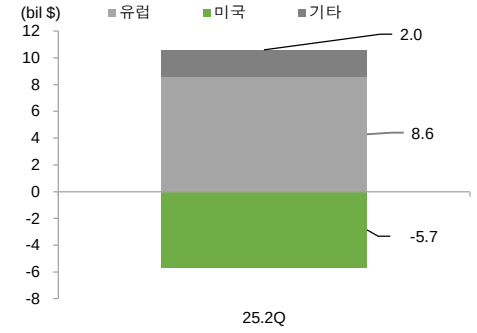
반면 직전 분기에 3.15억 달러가 순유입 되며 3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던 호주/뉴질랜드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2025년 2분기에는 1.65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스타일 별로는 패시브 전략의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이 4억 달러 순유출 되었는데 특히 Vanguard Ethically Conscious Global Aggregate Bond (NZD-hedged) 펀드가 4.2억 달러 순유출 되며 패시브 펀드 자금 유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2.35억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한편 자산별로는 채권형과 혼합형은 순유출을 보였으나 주식형 등은 순유입을 기록했다.

도표 1. 분기 별 글로벌 ESG펀드로의 자금 흐름 추이



자료: 모닝스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2025.2Q 기준 지역별 자금 흐름



자료: 모닝스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SG 펀드 Asset: 약 3.5조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10% 증가

2025년 2분기 기준 글로벌 ESG 펀드 규모는 3조 5,350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0% 증가함

2025년 1분기말 기준 ESG 펀드 전체 규모는 3조 5,35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24년 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번 분기 들어 글로벌 자산 시장의 강세와 함께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의 강세 영향으로 전체 글로벌 펀드 시장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모닝스타에 따르면 주요 펀드 시장 지표인 Morningstar Global Market Index와 Morningstar Global Core Bond Index가 이번 분기 동안 각각 +11.5%와 +4.3%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불확실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전망, AI 붐, 지정학적 위험 지속, 글로벌 무역 분쟁, 주요국의 정치 환경 변화 등 복합적인 거시 경제적 배경 속에서도 글로벌 ESG 펀드 규모가 성장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최근 발표된 모닝스타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면 유럽 지역의 ESG 펀드들이 규제 강화에 따른 리브랜딩 등으로 기존에 발표했던 보고서와 ESG 펀드 유니버스에서 변화가 다수 발생했으며 일부 통계 자료에 차이가 나타나서 유의가 필요하다.

유럽 지역의 ESG 펀드 규모는 3조 40억 달러로 직전 분기 말보다 10% 증가하여 전체 ESG 펀드 규모의 85.0% 차지함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 지역의 ESG 펀드 규모는 2025년 2분기 3조 40억 달러로 전체 글로벌 ESG 펀드 시장의 85%를 차지했다. 직전 분기 대비 10% 증가했는데 이는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이번 분기 순유입을 보이고 유럽 자산 시장의 강세에 긍정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유럽 지역은 전통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 2021년 3월 시행된 SFDR(Sustainable Financial Disclosure Regulation)과 같은 ESG 관련 강력한 규제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ESG 펀드 자산이 꾸준히 성장을 보여왔다. 비록 지난 분기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2023년 이후 글로벌 자산 시장의 상승세와 함께 성장하여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유럽 지역은 여러 분야에서 ESG 펀드 관련 선진 지역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ESG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패시브 전략은 유럽 지역 ESG 펀드 규모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시브 전략의 ESG 펀드는 3년전 유럽 지역 ESG 펀드 자산의 28% 미만에서 2024년말 33%까지 성장했으며, 2025년 2분기에도 자금흐름이 순유입을 보이는 등 성장을 이어가 ESG 펀드 전체의 1/3을 기록했다. 이는 유럽에서도 투자자 선호도가 액티브 전략에서 비용 효율적인 패시브 전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5년 2분기말 기준 유럽 內 운용사별 현황을 살펴보면 세계 최대 운용사인 BlackRock이 강력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패시브 전략과 액티브 전략의 모든 개방형 뮤추얼 펀드 및 ETF 중 ESG 펀드 규모가 전분기 대비 14% 증가해

3,993억 수준으로 지난 분기에 이어 1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Credit Suisse를 인수한 UBS와 유럽 최대 운용사인 Amundi 순으로 나타났는데 ESG 펀드 규모는 각각 전분기 대비 13%,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지역의 ESG 펀드 규모는 3,550억 달러로 직전 분기 말보다 약 7.6% 증가하여 전체 ESG 펀드 규모의 10.0%를 차지함

또한 2025년 2분기말 미국 지역 ESG 펀드 규모는 3,550억 달러로 전체의 10%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분기말 대비 7.6% 증가한 수준이다. 이 규모는 가장 컸던 2021년 말에 비하면 약 1% 적은 규모이나 직전 최저치인 2022년 3분기보다는 약 31% 증가한 규모이다. 미국에서는 ESG를 둘러싼 정치적 반발이 심화되자 ESG 시장이 부정적 영향을 받아 미국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 증시의 호조로 미국 지역의 ESG 펀드의 순자산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反ESG성향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집권 영향으로 중장기적으로 ESG 투자 시장의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기존에는 ESG 펀드 시장에서 고금리가 청정 에너지 및 기타 친환경 산업 등 일부 영역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기후 변화 대응 및 DEI 정책에 대한 반대 행정명령과 같은 反ESG 정책 조치는 새로운 법적 위험을 야기했다. 이로 인해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ESG 펀드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여기에 글로벌 ESG 규제 강화 트렌드와 그린 워싱에 대한 우려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5년 2분기말 기준 미국 內 운용사별 운용 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ETF 등 Passive 전략의 ESG 펀드에 강점이 있는 세계 최대 운용사인 BlackRock의 ESG 펀드 규모가 61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여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Vanguard(420억 달러), Parnassus(366억 달러), Morgan Stanley (incl Calvert, 365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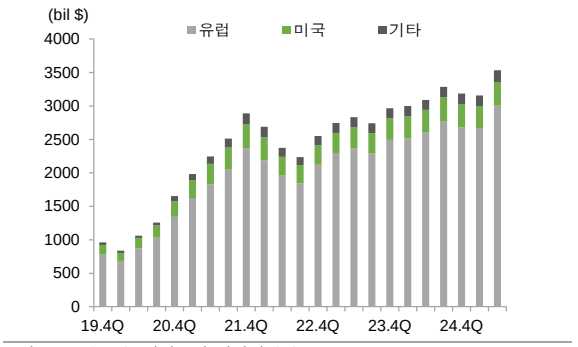
기타 지역의 ESG 펀드 규모는 1,760억달러로 직전 분기말에 비해 10% 증가하여 전체 ESG 펀드 규모의 5% 차지함

한편 일본, 호주/뉴질랜드, 캐나다, 아시아(일본 제외) 등을 비롯한 기타 지역의 ESG 펀드 규모는 직전 분기말 대비 10% 증가한 1,760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의 5.0% 수준을 차지했다. 기타 지역은 2021년 하반기 이후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2021년 한 해 동안 124% 성장했으나 이후 2022년 3분기까지는 역성장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22년 4분기부터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으며, 2023년에는 한 해 동안 6% 가까이 성장했으며, 2024년에는 연간 7.9% 성장했다. 올해 들어서는 1분기 역성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2분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경우 직전 분기말 대비 6% 증가한 78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 제외 아시아 지역의 ESG 펀드 시장의 구성은 전분기 대비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가장 큰 3대 시장은 중국(44%), 대만(37%), 한국(9%)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태국은 자산 비중이 2.6%로 증가하여 2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앞질렀다. 스타일별로 살펴보면 액티브 및 패시브 전략의 ESG 펀드 모두 자산이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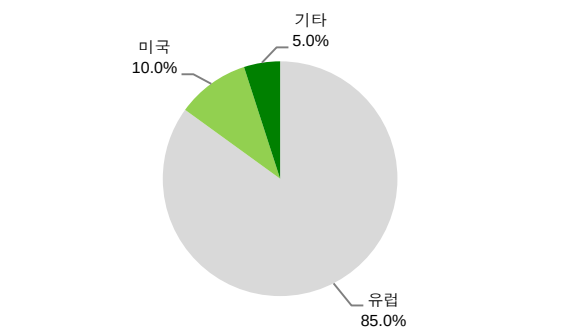
또한 호주/ 뉴질랜드 지역은 342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주 ESG 펀드 시장은 일부 소수 운용사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상위 10개 운용사가 전체 ESG 펀드 자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3분기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지역의 ESG 펀드 규모는 자금 흐름이 순유입을 보이고 자산 시장의 상승 영향 등으로 직전 분기 대비 11% 증가한 405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일본 지역의 ESG 펀드는 233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 규모가 전체 ESG 펀드 내 총자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별로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의 규모가 전체 ESG 펀드의 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3. 분기 별 글로벌 ESG펀드 규모 추이



자료: 모닝스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2025.2Q 기준 글로벌 ESG 펀드 지역별 비중



자료: 모닝스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신규 ESG 펀드 출시: 사상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 일부 회복

2025년 2분기 기준 글로벌 ESG 펀드수는 직전 분기말 대비 소폭 감소한 7,426개로 4분기 연속 감소세 기록

2025년 2분기말 기준으로 글로벌 ESG 펀드 수는 총 7,426개로 직전 분기 대비 2개 감소하여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펀드 수 기준으로 유럽 지역의 ESG 펀드는 총 5,448개로 전체의 73.4%를 차지했으며, 기타 지역의 펀드 수는 총 1,480개로 자산 규모 비중에 비해서는 높은 1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지역의 펀드 수는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미국 내 anti-ESG 기조 심화 등으로 ESG 펀드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서 직전 분기 대비 12개가 감소한 총 498개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단, 2025년 2분기 기준 글로벌 ESG 펀드 신규 출시 건수는 72개로 유럽과 기타 지역을 중심으로 직전 분기 대비 3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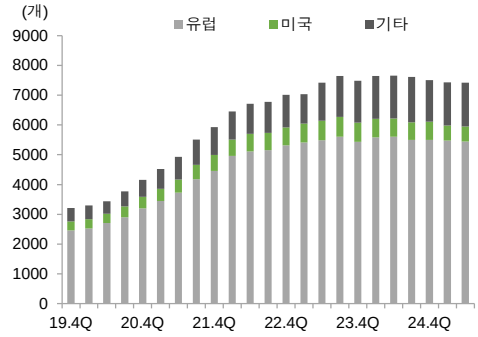
한편 2025년 2분기에는 72개의 ESG 펀드가 새롭게 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분기 57개 대비 38% 증가하며 신규 펀드 개발 활동의 둔화가 일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일본 제외 아시아 지역에서 40개의 신규 펀드가 출시 되었기 때문으로 특히 태국 지역에서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관련 신규 펀드 출시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2020년~2023년 대비 신규 ESG 펀드 출시는 크게 둔화된 모습이다. 이에 대해 모닝스타는 거의 모든 운용사가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ESG 펀드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기 위해 서두른 2020년 이후 3년간의 높은 성장 이후 비로소 ESG 펀드의 개발 활동이 정상화 되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2025년 2분기에 유럽에서는 100개의 ESG 펀드가 폐쇄되었는데, 이 중 74개는 청산되었고 26개 펀드는 다른 펀드에 합병되었다. 이는 직전 분기의 폐쇄 건수인 67개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모닝스타에 따르면 이러한 펀드 폐쇄 증가는 ESG 시장의 성숙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ESG 펀드 산업은 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져 자산을 유치하거나 좋은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펀드는 점점 더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더 나은 성과와 인기 있는 전략만이 살아남는 것은 산업의 자연스러운 진화 현상으로 봐야할 것이다.

2025년 2분기 기준 미국 ESG 펀드 신규 출시 건수는 지난 분기 0개에서 5개로 역대 최저 수준에서 벗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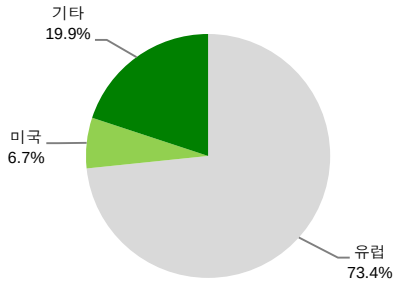
한편 지난 분기 ESG 펀드 신규 출시가 없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미국 지역은 2분기에는 5개의 펀드가 신규 출시 되었다. 이는 지난 해 ESG 펀드 신규 출시가 10개에 그치며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던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2021년과 2022년에 출시된 연간 100개가 넘는 펀드와 비교하면 매우 급감한 상황으로 이러한 신규 펀드 출시의 급격한 둔화는 ESG 둘러싼 정치적 반발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ESG 투자 전략에 대한 투자자 수요도 낮아졌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도표 5. 분기별 글로벌 ESG 펀드 수 추이



자료: 모닝스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 2025.2Q 기준 지역별 ESG 펀드 수 비중



자료: 모닝스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 지역별 차별화 속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한 국내 ESG 시장

주요국 ESG 시장 차별화 지속: US vs Non US

작년 이후 미국 지역 ESG 투자 시장은 큰 도전을 받고 있음 →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反ESG 정서가 강화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시작되면서 정치적 반발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 →US vs Non US로 ESG 투자 시장의 자금 흐름은 차별화 됨

최근 몇 년 동안 평균적으로 ESG 전략의 저조한 성과, 그린 워싱 우려, 규제 변화, 미국의 反ESG 정서 강화 등 여러 요인이 ESG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적 측면에서는 청정 에너지 및 기타 친환경 산업의 일부 분야는 지속되는 고금리로 인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작년 이후 미국 지역 ESG 투자 시장은 큰 도전을 받고 있다. 또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反ESG 정서가 강화되며 정치적 압박이 거세졌으며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ESG에 대한 정치적 반발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섰다는 평가이다.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미국과 미국 외 지역으로 나뉘어 차별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지역은 2025년 2분기에도 57억 달러가 순유출 되며 최근 11분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하는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유럽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약 86억 달러가 순유입 되며 1분기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으며 기타 지역의 ESG 펀드로의 분기 자금 흐름은 약 20억 달러가 순유입 되며 3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중이다.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전면적으로 후퇴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 이후 기후 변화 대응 및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에 대한 반대 행정명령과 같은 反ESG 정책을 시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DEI를 '급진적이고 낭비적'이라고 규정하며 지난 1월 20일 행정명령 14151호를 서명하면서 연방 정부 내 모든 DEI 관련 의무 및 프로그램을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다음 날, 행정명령 14173호가 발표되어 연방 계약업체의 차별 금지 및 적극적 차별 철폐 조치를 요구하는 오랜 의무 조항인 행정명령 11246호가 폐지되었다. 이 새로운 명령은 연방 계약에서 DEI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성과 기반 채용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월마트, 로우스, 메타와 같은 주요 기업들이 변화하는 연방 정부의 압력 영향으로 DEI 의무 이행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했다.

IRA 법안 변경으로 청정에너지 사업 등을 지원하는 혜택 축소

또한 바이든 정부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 되었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한 청정에너지 지원 사업이 트럼프 정부에서 대폭 축소되고 있다.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도한 감세법안(일명 '메가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에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한 청정에너지 등의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감세 재원 마련을 위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축소를 추진한 것이다.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PITC, ITC) 적용 기한 및 대상이 대폭 제한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되었다. 기존 IRA에서 2032년까지 적용 예정이던 청정전력 생산세액공제(PTC), 청정전력 투자세액공제(ITC) 등 주요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리스·임대 사업 등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의 제3자 소유(TPO) 사업은 제외되었다.

IRA 개정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조기 종료 예정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개정 사항 중 하나인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조기 종료가 예상된다. 미국 내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어지던 최대 7,500달러(30D)의 구매보조금은 종료 시점을 기존 2032년 말에서 2026년 말로 6년 앞당기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2026년 이후에는 미국 내 누적 판매 20만 대 미만 업체의 전기차만 한정 적용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GM, Ford, Tesla, 현대차 등 대부분의 업체가 혜택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 이후 중고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4,000)와 상업용 전기차 대상 세액공제(45W, $7,500)도 종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기존에는 차량 대여(리스)·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45W)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 되었었다. 완전 구매 방식으로 구매하는 경우 북미 조립 및 배터리 조달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리스를 통해 구매한 상업용 차량의 경우 해당 요건을 우회하여 세제 혜택이 부여되어 왔었는데 2026년부터 불가능해진다.

특히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45X)의 조기 종료로 관련 산업 중 일부는 타격이 불가피

특히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45X)의 조기 종료로 관련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배터리 경우 미국 현지 생산시 판매량에 비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첨단제조세액공제의 경우 현안 대비 혜택 기간을 1년 축소한데 그쳤다. 기존에는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2033년에 해당 혜택이 종료되는 방식이었으나(2030년에는 총액의 75%, 2031년 50%, 2032년 25%, 2033년 폐지), 제안된 변경안에서는 2031년까지 단기적 축소로 혜택이 유지된 후 이후 종료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다만 풍력 부품 등 생산업체 대상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45X) 폐지 시점은 기존 2032년말에서 2027년말로 5년 앞당겼다. 또한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45V)도 2032년말에서 2025년말로 단축되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7. 하원 통과 감세법안에 따라 주요 IRA 축소 내용

구분	기존 IRA 주요 내용	IRA 변경안
청정전력 생산/투자 세액공제	2032년말까지 청정전력 생산(PTC), 투자(ITC) 세액공제 적용	2028년말까지 적용 기한 단축, 2029년 이후 가동 시설은 제외
적용 대상	가정용 태양광 등 제3자 소유(TPO) 포함	TPO 등 일부 사업모델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2032년까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2026년 말까지로 단축, 2026년 이후 대부분 제조사에 적용 불가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리스·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도 세액공제 적용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45W) 폐지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태양광·풍력·배터리 등 첨단 제조 생산(45X) 세액공제 2033년까지 적용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앞당김 단계 축소는 2029년부터 시작, 2년간 진행 단, 풍력 부품의 경우 2027년말 조기 종료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2032년말까지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45V) 적용	2025년말까지로 단축 2025년 말까지 착공된 프로젝트는 기존 혜택 적용

자료 : 미국 하원, 언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反ESG 정책 조치는 새로운 법적 위험을 야기 → 미국 자산운용사 및 기관투자자들은 ESG 투자에 신중한 접근 방식 채택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집권주에서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니셔티브에 대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기후 변화 대응 관련 이니셔티브 활동 등도 크게 문제 삼는 등 反ESG 정책 조치는 새로운 법적 위험을 야기했다. 여기에 글로벌 ESG 규제 강화 트렌드와 그린 워싱에 대한 우려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자산운용사들과 기관투자자들은 ESG 투자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일부 미국 자산운용사의 ESG 관련 태도 변화 → 유럽지역의 연기금들은 위탁 운용사를 교체하는 한편 적극적 주주 관여를 확대

반면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일부 미국 자산운용사의 ESG 관련 태도 변화가 나타나자 유럽지역의 연기금들은 위탁 운용사를 교체하는 한편 적극적 주주 관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ESG 성과가 미흡하거나 ESG 정책이 후퇴한 자산운용사를 배제하고, ESG에 적극적인 운용사로 자금을 재배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국 최대 규모의 연기금 중 하나인 피플스 펜션(The People's Pension)은 미국 자산운용사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의 ESG투자 후퇴에 반발하며 280억파운드에 달하는 자금을 회수했다. 또한 덴마크 연기금 아카데미커 펜션(Akademiker Pension)도 스테이트 스트리트에 맡긴 4억 8000만달러 규모의 위탁 자금을 회수했다. 회수된 자금은 ESG 투자 정책에 대해서 높게 평가 받고 있는 유럽계 자산운용사인 아문디 등에 예치된 것을 알려졌다. 또한 네덜란드 연기금 PME는 블랙록(BlackRock)에 맡긴 50억유로 규모의 위탁 운용 계약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ME는 '블랙록(BlackRock)의 지속가능 투자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연기금들은 기후위험 대응, 투명성 제고, 이사회 다양성 확대 등의 주제에 대해 직접적인 주주 활동(Engagement)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대규모의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투자를 새롭게 집행 → 전력망, 해상풍력, 수소, 탄소포집(CCUS), 전기차, 건물효율, 인프라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

또한 영국은 2025년 대규모의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투자를 새롭게 집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력망, 해상풍력, 수소, 탄소포집(CCUS), 전기차, 건물효율, 인프라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추진되고 있다. 영국 내셔널 그리드는 2026년까지 약 420억 파운드를 영국 및 미국 내 친환경 전력망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인데, 그 중 상당 부분이 영국 내 신규 전력망 확충과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국 정부는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분야에 민간투자를 연간 300억 파운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풍력·태양광·수소·원자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별로 투자 로드맵을 수립, 민간과 공공자금이 함께 집행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2030년까지 50GW), 태양광(70GW), 수소생산(10GW), CCUS(2029년까지 94억 파운드의 공공자금) 등의 대형 프로젝트가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국부펀드를 통해 청정에너지 5대 분야(수소, CCUS,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철강, 항만인프라)에 최소 58억 파운드를 출자할 예정이다. 또한 영국 정부는 2030년까지 60억 파운드를 투입해 3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며, 저탄소 연료 및 지속가능 항공연료 개발에도 수십억 파운드를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3월 발표된 국제국부펀드포럼(International Forum of Sovereign Wealth Funds, IFSWF)과 원플래닛국부펀드(One Planet Sovereign Wealth Funds, OPSWF)의 '2024년 IFSWF-OPSWF 기후변화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ESG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이 생겼지만, 금번 설문 조사에 참여한 국부펀드들의 ESG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직전 IFSWF-OPSWF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97%가 미국의 anti-ESG가 자사의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국부펀드들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설문조사와 담당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회원인 48개 국부펀드에 설문 조사를 배포해 32(67%)곳에서 유효한 답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 98개 국부펀드의 33%에 해당하며 특히 이들이 운용하는 총 자산은 약 7조 달러로 전체의 약 80%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전 세계 국부펀드들은 anti-ESG와 기후 금융을 둘러싼 논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투자 전략에 기후 고려 사항을 통합하고 있어

글로벌 국부펀드들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지속 가능성에 관점에서 집행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우수한 재무적 성과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 세계 국부펀드들은 anti-ESG와 기후 금융을 둘러싼 지속적인 논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투자 전략에 기후 고려 사항을 통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에너지 기술과 비효율적인 산업 모델에서 벗어나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환경적 필수 조건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필수 조건이라고 판단하고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돈을 운용하는 국부펀드의 특성상 전환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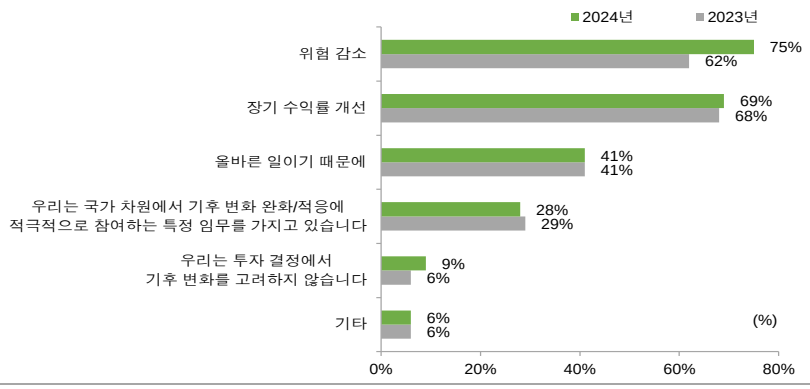
보고서에 따르면 국부펀드들은 다음 4가지 주요 투자 테마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부분 ESG 시장의 주요 투자 테마와 겹치는 분야이다.

- 더 깨끗한 에너지 생성: 재생 에너지, 천연 가스 혁신 및 차세대 연료에 대한 투자 확대
- 에너지 효율적 분배: 전기화, 스마트 그리드 및 저장 솔루션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 강화
- 자원 사용 최적화: 에너지 효율적인 제조, 친환경 건물 및 지속 가능한 공급망에 대한 투자 확대
- 물리적 및 전환 위험 관리: 데이터 기반 위험 모델링, 보험 전략 및 회복성 계획을 통합하여 포트폴리오 보호

국부펀드들이 투자 결정에 기후 고려 사항을 점점 더 많이 통합하고 있는 이유는 윤리적 또는 도덕적 고려 사항이 아니라 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개선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

IFSWF는 2024년 보고서에서 국부펀드가 투자 결정에 기후 고려 사항을 점점 더 많이 통합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윤리적 또는 도덕적 고려 사항때문이 아니라 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개선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금번 설문 응답 기관의 75%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 결정에서 기후 변화를 고려했다고 답했으며, 이는 직전 해의 62%에서 증가한 수치였다. 또한 응답 기관의 69%는 그렇게 하면 장기 수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전년도 응답자 비중(68%)과 거의 유사했다. 한편 이처럼 기후 관련 고려 사항을 투자에 통합하는 것이 재무적인 것을 고려함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국부 펀드의 수는 응답자의 41%로 직전 해와 동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국부펀드들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옳거나 착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기후 고려 사항을 운용에 통합함으로써 재무적으로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ESG를 둘러싼 역풍에 흔들리지 않고 ESG 투자에 대한 태도가 확고한 것이다.

도표 8. 투자 결정에서 기후 변화를 고려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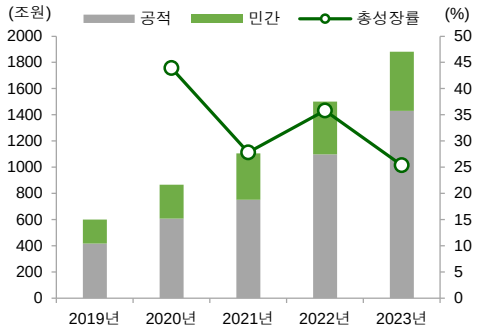
자료: IFSWF,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하며 성장한 국내 ESG 시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가장 최신의 보고서인 2023년 한국 ESG금융백서에 따르면 미국의 反ESG기조 강화 속에도 불구하고 국내 ESG 투자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 하며 성장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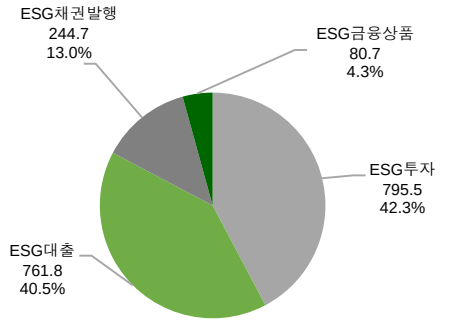
한편 ESG를 둘러싼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ESG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국내 ESG 시장 규모를 가장 넓게 분석하고 있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의 가장 최신 보고서인 2023년 한국 ESG금융백서에 따르면 국내 ESG 시장 규모는 총 1,882.8조 원으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9년 대비 213.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ESG금융 규모의 성장을 견인한 것은 1,430.6조 원을 기록한 공적 섹터(특히 52.9% 성장한 국민연금)로 전년 대비 30.2% 성장했다. 민간 섹터 또한 은행 부문의 대출 성장으로 전년 대비 12.3% 성장률 기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i)ESG투자 795.5조 원(총 ESG규모의 42.2%), ii)ESG대출 761.8조 원(40.5%), iii)ESG채권 발행 244.7조 원(13.0%), iv)ESG금융상품 80.7조 원(4.3%)으로, 가장 비중이 큰 유형은 ESG투자였다. KoSif는 국내 ESG금융시장의 성장을 금융당국의 ESG투자 확대 정책 방향과 금융권의 ESG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바탕으로 주요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및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투자가 확대된 결과로 분석했다.

도표 9. 국내 연도별 ESG 금융 잔액 성장 추이(NPS포함)



자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0. 세부 유형별 ESG 금융 잔액 비중(2023년,NPS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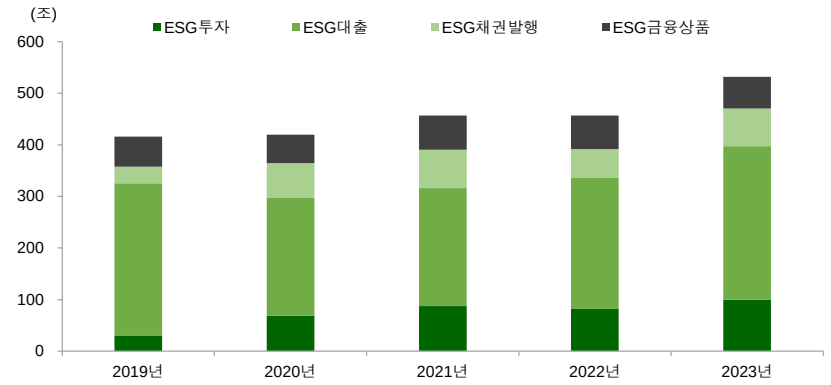


자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유형별 구성을 살펴보면 ESG대출이 총 신규 실행액 297.3조 원(총 ESG신규 실행액의 55.9%)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ESG투자 99.9조 원(18.8%), ESG채권 73.0조 원(13.7%), ESG상품 61.7조 원(11.6%)로 나타났다. 이 중 ESG대출의 경우 전년 대비 17.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2023년 신규 실행액 297.3조 원 중 87.0%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 대출(140.5조 원) 및 기업대출(117.6조 원)로 나타났다. 총 ESG투자 규모의 73.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NPS)이 신규 투자 금액을 제공해 주지 않아 ESG투자 영역의 신규 실행액 비중이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주식, 채권, 대체투자 모든 부문에서 2022년 대비 성장을 보이며 총 2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SG채권의 신규 발행 규모 또한 전년 대비 30.0%의 큰 폭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채권 종류로 살펴보면 사회적채권이 67.8조 원(92.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녹

색채권 3.3조 원(4.5%), 지속가능채권 1.9조 원(2.6%) 순서로 나타났다. 총 ESG 신규 실행 규모의 11.6%를 차지하고 있는 ESG상품은 2022년 대비 5.1%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예·적금의 신규 실행액 성장이 전년 대비 다소 저조했기 때문이다.

도표 11. 연도별 ESG 금융 신규 실행 규모 상세(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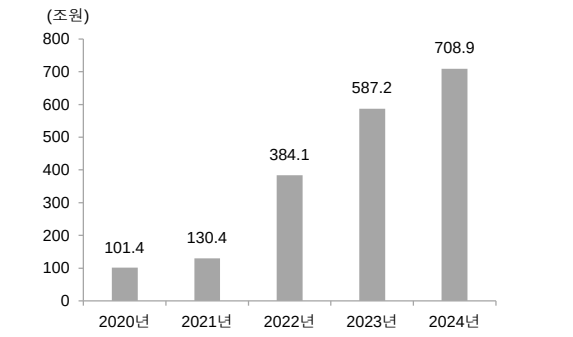


자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최근 업데이트 된 국내 3대 연기금들의 ESG 투자 규모는 직전 보고서 수치 대비 약 10~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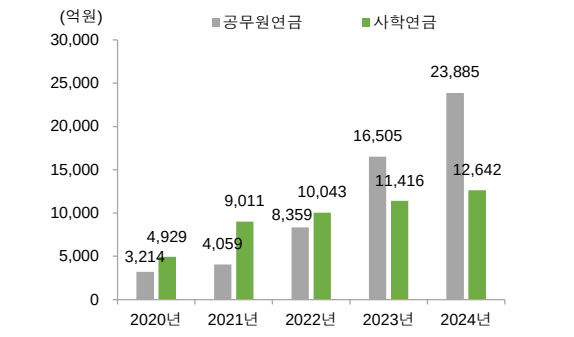
더 나아가 이 자료가 작성된 이후 공시된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ESG 투자 규모는 더욱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ESG 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적 연금을 살펴보면 국내 3대 연기금의 경우 2024년 들어 ESG 투자 규모가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규모가 큰 국민연금의 경우 2024년 708.9조 원으로 직전 년도 대비 2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2024년 2조 3,885억 원으로 직전 년도 대비 4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의 경우 2024년 1조 2,642억 원으로 직전 년도 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우정사업본부 등을 비롯한 공적 기관의 ESG 투자 규모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표 12. 국민연금의 연도별 ESG 투자 규모 추이



자료: 국민연금,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3.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의 연도별 ESG 투자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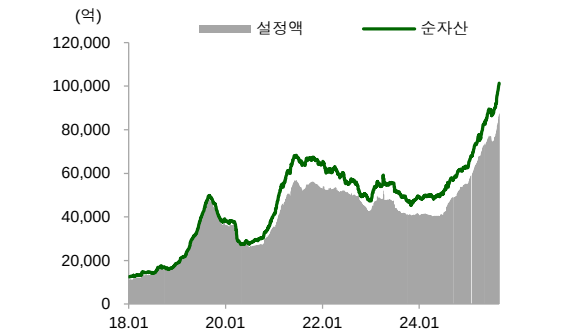


자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ESG 펀드 규모는 2024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순자산 규모는 10조 1,426억 원 수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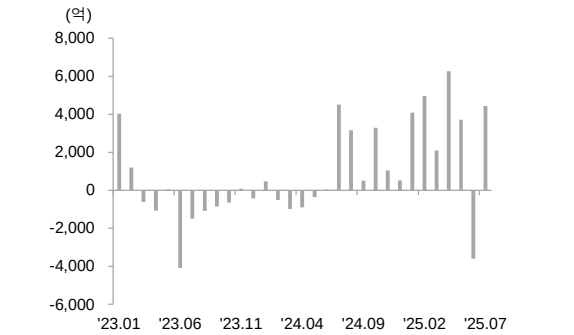
또한 대표적인 민간영역인 국내 ESG 펀드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ESG 펀드 규모는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설정액은 8조 7,505억 원이고 순자산 규모는 10조 1,426억 원 수준으로 각각 전년말 대비 3조 2474억 원, 3조 8,891억 원이 증가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를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ESG(주식) 펀드는 높은 성과 속에 차익실현성 환매가 이어져 연초 이후 약 2,500억 원의 자금이 유출 되었으나 증시의 강세로 인해 순자산 규모는 오히려 370억 원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트렌드와 같이 ESG(채권) 펀드로는 자금 유입이 이어지며 연초 이후 설정액은 3조 5,228억 원 증가했으며 양호한 채권 시장의 흐름 영향으로 순자산 규모는 3조 8,396억 원이 증가하며 국내 ESG 펀드 시장 성장을 견인했다. 여기에 새로운 정부의 소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재생에너지를 중심 에너지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 감축 경로 마련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ESG 투자가 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음 번에 발표될 한국 ESG 금융백서에는 국내 ESG 시장 규모는 더욱 크게 증가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14. 국내 ESG 펀드 설정액 및 순자산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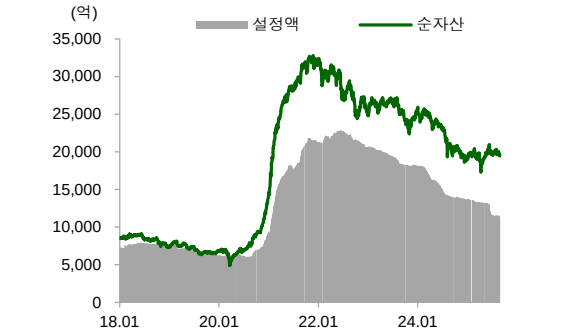
자료: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5. 국내 ESG 펀드 월별 자금 흐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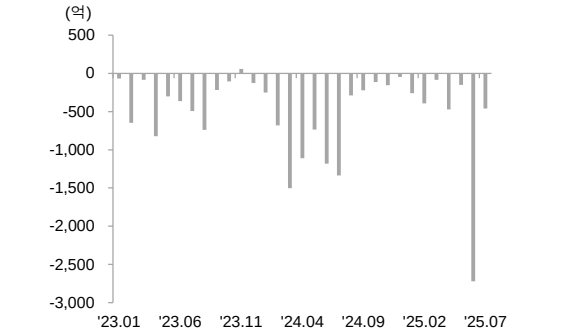
자료: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6. 국내 ESG(주식) 펀드 설정액 및 순자산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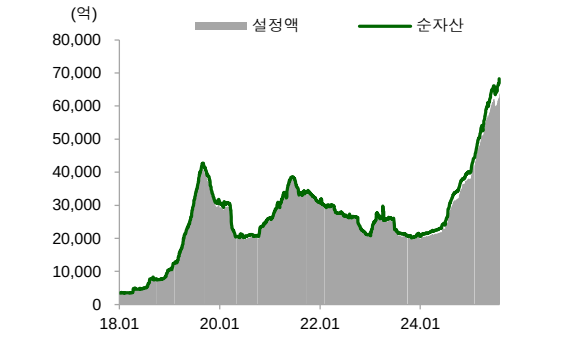
자료: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7. 국내 ESG(주식) 펀드 월별 자금 흐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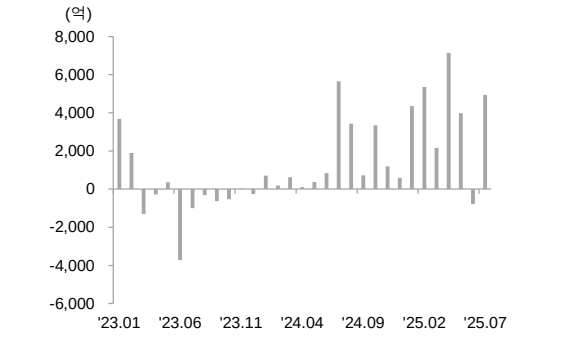
자료: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8. 국내 ESG(채권) 펀드 설정액 및 순자산 규모 추이



자료: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9. 국내 ESG(채권) 펀드 월별 자금 흐름 추이



자료: Fn-Spectrum,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일부 장기 투자자들은 최근 ESG를 둘러싼 정치적 반발 등으로 조정을 받은 ESG 투자 대상을 장기 투자 관점에서 검토하기도

이처럼 미국의 反ESG 정서 강화에 따른 우려, ESG 관련 규제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영국 & EU 지역과 중국 및 한국 등 일부 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탈탄소화 추진과 기후 솔루션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 등으로 인해 ESG 시장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세계의 대형 기금 관리자들은 최근 反ESG 정서 확대에도 불구하고 ESG 투자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가, 특히 反ESG 정서가 강화되고 있는 미국에서 진행된 다양한 설문 조사 결과(예: US Sif 보고서)에서도 미국의 장기 투자자들도 ESG 투자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ESG 투자는 장기투자이고, 대형 기금일수록 ESG 요소를 고려한 운용이 운용 프로세스에 이미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장기 투자자들은 최근 ESG를 둘러싼 정치적 반발 등으로 조정을 받은 ESG 투자 대상을 장기 투자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데 강점이 있는 국부펀드와 글로벌 연기금들은 기후 관련 투자를 지속 →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정 에너지에 높은 관심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국부펀드와 대형 연기금들은 구조적인 시장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국부펀드와 글로벌 연기금들이 ESG를 둘러싼 역풍에 의해 기후 솔루션 관련 산업이 변동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 기술 발전, 규제 적응 등에 의해 촉진된 청정 에너지로의 진화가 수익 창출을 위한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실제 최근 언론을 통해 일부 글로벌 연기금의 기후 솔루션 투자 소식이 들여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ESG를 둘러싼 압박 등으로 한동안 ESG 투자 시장의 반등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부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와 전환 금융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ESG 정책 기조를 가진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소송 등 압박이 최고 수위에 다다르고 있어 한동안 미국 내 ESG 투자 시장의 반등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부 수혜가 예상되는 스마트그리드, SMR, CCUS 등의 분야와 전환 금융 등에 대해서는 미국 기관투자자들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전세계적으로 ESG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화 진행 중으로 준비를 잘 해 기회로 삼아야 할 것 → ESG 규제는 그린 워싱 위험을 줄이고 성장의 틀을 다지는데 일조할 것 →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ESG 투자 시장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또한 미국에서 일부 ESG 정책이 후퇴하기는 했지만 ESG가 여전히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 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관세 전쟁을 넘어, 이제는 통상 기준과 규제의 무기가 날로 정교해지는 중으로 특히 인권, 탄소, 공급망 등 전방위에 걸친 ESG 규제가 무역의 기준으로 자리 잡으며, 사실상 비관세 장벽 기능을 하는 새로운 통상 도구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에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ESG 분야에서 규제화 물결이 일어나면서 이에 따라 기업에겐 기회와 위험이 될 것이다. 이에 시행 시기가 일부 연기되고 있지만 CBAM, 공급망 실사, EUDR 등 일부 ESG 규제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ESG 투자 분야에도 다양한 규제 도입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ESG 규제는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ESG 시장이 그린 워싱 위험을 줄이고 성장의 틀을 다지며 레벨 업 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에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ESG 투자 시장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Compliance Notice

이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